



경제시스템 선진화, 에너지 자립사회의 구현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인터뷰
An interview with the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Kim Young-joo

■ 장관님의 취임 소감과 임기 중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한미 FTA,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촉진의 계기가 될 것

산자부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이자 국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부처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자부의 수장으로서 큰 책무를 느끼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한미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며,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를 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 사업전환지원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한미 FTA의 연착륙을 견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 패션, 유통·물류, 컨설팅, e-비즈니스 등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균형정책을 종합 점검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을 확대를 위해 자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밭보고 나서겠습니다.

■ 국가에너지정책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에너지 효율 극대화전략 및 에너지절비기술 수출국으로 도약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한때 배럴당 72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 상황과 세계 주요 국가의 자원국유화 선언, 기후변화협약 등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에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17개국을 대상으로 정상자원의교를 본격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였으며, 베트남 11-2광구 개발 성공 등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에너지원단위 3개년 계획과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작년 11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출범하여 참여정부의 에너지 분야 장기계획인 「에너지 비전 2030」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전 2030」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사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탈석유 사회 실현,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사회 구현, 에너지 설비 및 기

술 수출국으로 도약이 그것입니다.

「에너지 비전 2030」실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수소경제 기반 구축, 에너지 효율 개선 등 9가지 세부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2007년 추진할 집단에너지 관련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공정경쟁과 규제완화로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

집단에너지산업은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등 집단에너지 분야의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자간의 공정경쟁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타에너지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자부 주관으로 집단에너지 및 유관 에너지사업자와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집단에너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확정, 시행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집단에너지 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집단에너지 산업계와 이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협회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협회는 집단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도입된 집단에너지 사업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사업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산업의 성장과 함께 한국지역난방협회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간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유도해 주시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넓은 안목으로 회원사의 이익 대변에 앞서 국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협회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담 : 정병철(KDHA 상임부회장)

